

우토로 Q&A

ウトロ Q&A

Q. 해방 후에도 우토로 재일조선인들은 왜 귀국하지 못했나요?

A.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토로 조선인들은 공사 중단과 더불어 식량 배급이 중단된 채 그 자리에 방치되었습니다. 귀국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고향에 아무도 남지 않아 돌아갈 곳이 없는 막막한 사람들, 전염병 등 해방 후의 한국의 혼란 상황과 일본 정부의 반출 재산의 엄격한 제한으로 당분간만 일본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로 하고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사회의 차별, 조국의 무관심 속에서도 우토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 조선인들에게 가족과 동포들과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Q.우토로 토지문제란 무엇인가요?

A. 군비확장 건설을 맡았던 군수기업을 계승한 닛산차체는 1987년, 그 동안 우토로 주민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던 수도관 설치 요구에 대해 동의하면서 뒤에서는 주민들 몰래 이 토지를 매각해버렸고, 토지 소유권은 서일본식산이라는 민간 부동산업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88년, 주민들은 건물수거, 토지명도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서게 됩니다. 아무런 일체 식민지 지배와 전후 보상도 없이 약 50년 간 우토로에 방치되었던 조선인들은 이렇게 군수기업과 일본정부에 의해 다시 한 번 생존권조차 유린당하며, 2000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주민 전원 패소 결정으로 강제철거의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Q.토지명도 소송 패소 이후의 경과를 알려주세요.

A. 우토로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전후 보상에 관한 역사 문제이자 거주권에 관한 인권 문제입니다. 한일협정의 문제점이 재차 지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시민들이 2005년부터 토지 매입을 위한 모금운동에 돌입했고,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정부의 예산 편성과 오랫동안 우토로를 지켜온 뜻있는 재일동포들,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일본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결국, 우토로 동포들은 토지의 3분의 1 을 매입함으로써 당장의 강제철거 위협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제 겨우 일본정부가 제도에 따른 마을정비의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토로 주민들의 주거와 재일조선인 마을로서의 역사적 상징성 보존 등 우토로의 미래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우토로 마을 벽면에 쓰여진 글귀 | ウトロ地区の壁面に書いてある文句



ウトロ Q&A

우토로 Q&A

Q.終戦後にウトロの在日朝鮮人はどうして帰国できなかったのですか?

A. 終戦の喜びもつかの間、ウトロの朝鮮人らは工事中断と同時に食料配給が絶たれたまま放置されました。帰国した人も多くいましたが、故郷に身寄りがおらず帰る所がなかったり、伝染病など終戦後の韓国の社会的混乱、日本政府による財産の持ち出しの厳しい制限などの理由で、しばらくの間日本に残ってなんとか食いつないでいこうと残った人々も多かったのです。日本政府と日本社会からの差別、祖国の無関心の中、ウトロは拠り所のない朝鮮人にとって家族や同胞と一緒に暮らせる大切な生活の場となったのです。

Q.ウトロの土地問題とは何ですか

A. 軍用飛行場の建設を任された軍需企業を引き継いだ日産車体は、1987年にその間ウトロ住民の長年の要求事項であった水道管設置に同意しながら、密かにこの土地を売却、土地の所有権は西日本殖産という民間不動産業者に移転されました。そして1988年、住民らは建物収去、土地明渡訴訟の被告となり法廷に立つことになりました。日本の植民地支配と戦後、何の補償もないまま50年以上放置されてきた朝鮮人らは、軍需企業と日本政府によって再び生存権を脅かされ、2000年に日本最高裁判所の住民全員敗訴決定によって強制撤去の脅威に苦しめ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Q.土地明渡訴訟の敗訴後の経過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A. ウトロ問題は根本的には不法な植民地支配と戦後の補償問題であり、居住権に関する人権問題です。韓日協定の問題点が繰り返して指摘される理由もここにあります。特に日本政府が自らやったことですから自ら解決すべき問題です。しかし、これを見ているだけでは気がすまなかった韓国の市民らが、2005年から土地買入のための募金運動を展開、これを通して韓日両国政府の責任ある対応を求めました。韓国政府の予算編成と長年ウトロを守ってきた志ある在日韓国人、「ウトロを守る会」の日本人らとの連帯を通して、結局ウトロの同胞らが土地の3分の1を買い入れ、強制撤去の危機は取りあえず乗り切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2016年、やっと日本政府が制度を整え、町の整備に着手しました。しかし、今後もウトロ住民らの住居と在日朝鮮人の村としての歴史的な象徴性の保存など、ウトロの未来に皆様の関心と応援が必要です。

우토로 마을 | 우트로

주 소	교토부 우지사 우토로 51번지 京都府宇治市 ウトロ51番地
교 통	이세다 역-긴테츠 선 伊勢田駅-近鉄京都線
방 문 문 의 訪 問 お 合 せ	지구촌 동포연대(KIN) : 02-706-5880 / kin2333@gmail.com 南山城同胞生活綜合センター : kimsufan@gmail.com

이 안내서는 배우 송혜교와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의 후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この案内書は、女優ソン・ヘギョと韓国広報専門家であるソ・ギョンドク教授の後援で制作されたものです。

일본 교토부 우지사

우토로 마을 역사이야기

日本国京都府宇治市の ウトロ地区の歴史物語



우토로 마을의 형성

ウトロ地区の形成

일본 교토부 우지사 이세다초 51번지. 일명 ‘우토로’로 불리는 이곳은 1941년 일본 정부가 교토 군사비행장 건설을 위해 재일 조선인 1300여명을 동원함으로써 불모지 위에 형성된 조선인들의 마을이다.

이들 조선인들은 밤낮으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도 일본의 패전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해방 이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고국에 돌아가길 원했지만, 한반도의 사회정치적 혼란과 일본 정부의 반출 재산 제한, 기타 생계문제 등의 사정으로 잠시 귀국을 미루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일본 정부나 동원 당사자인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최소한의 생계 지원은커녕 사실상 방치된 채,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상부상조하며 터를 잡고 살아왔다.

日本国京都府宇治市伊勢田町51番地。通称「ウトロ」と呼ばれるこの地区は、1941年、日本政府が京都軍事飛行場建設に1300余人の在日朝鮮人を動員した結果、不毛の地の上に形成された朝鮮人の集落である。

これらの朝鮮人らは昼夜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たが、やがて日本の敗戦により工事は中断され、何の補償も受けられなかった。終戦後、多くの労働者は帰国を希望したが、朝鮮半島が社会的にも政治的にも混乱していることや日本政府による財産の持ち出し制限、その他生計の問題などで帰国を後回しにする人々もいた。

彼らは日本政府や動員の当事者である企業から、何ら補償ももらえず、最低限の対策はおろか、事実上放置されたまま、この地域を第二の故郷として互いに助け合いながら根を下ろして生きてきたのである。



▲ 해방직후 우토로 마을 | 終戦直後のウトロ地区

재일동포 차별의 상징 우토로 마을

在日韓国人の差別の象徴、ウトロ地区

우토로 마을 같은 조선인 집단 거주지역은 일본 전역에 걸쳐 있다. 조선인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차별 때문이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에게 집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고, 낮은 임금을 받던 조선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집값이 터무니 없이 비쌌다.

때문에 조선인들은 사람이 살기엔 열악한 상습침수지역, 국유지 등에 가건물을 짓고 살았다. 이런 마을들은 일본인들에게 '슬럼' 취급을 받으며 무시와 핍박의 대상이 됐다.

우토로 마을 역시 비가 내리면 물에 잠기기 일쑤였고, 1988년까지도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은 우물물로 연명하면서 가난과 차별의 삶을 살아야 했다.

ウトロ地区のような朝鮮人の集落は、日本各地に存在している。朝鮮人らが集団で暮らすしかなかった理由は、差別のためであった。日本人は朝鮮人に住宅を貸そうとはしなかったし、低賃金の朝鮮人には高い家賃は手が届かなかったためだ。



▲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우물 現在も使われている井戸

そのため、朝鮮人らは住居環境が劣悪な浸水地帯や国有地などに仮りの住まいを建てて暮らした。そのような集落は、日本人に「スラム」と蔑まれ、無視と迫害的となった。

ウトロ地区は雨が降ると浸水することがよくあり、1988年まで上水道が引かれていなかったため、住民らは井戸水で命をつなぎながら貧乏と差別に耐え忍んでいた。



▲ 우토로 마을 전경 | 유토로 지역의全景

강제퇴거의 위기

強制退去の危機

우토로 주민들에게 강제퇴거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89년이다. 닛산차체로부터 소유권을 인수받은 서일본식산이 강제퇴거를 요구했고 마을에 중장비와 트럭이 들어왔다.

“집을 헐 작정이면 나를 먼저 깔아 죽여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드러누워 항거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남루하지만 자신들이 건설한 마을을 그렇게 지켰다. 그러나 2000년 일본 대법원에서 퇴거가 확정되면서 오갈 데 없이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ウトロの住民らに強制退去の知らせが伝えられたのは、1989年のことである。日産車体から所有権が移転された西日本殖産が強制退去を要求、村に重装備とトラックが押し寄せてきた。

“家を壊すなら、先に私の体を潰せ”

住民らは村の入り口に座り込み、これに立ち向かった。どんなにみすぼらくても自ら作り上げた家々を身を持って守りぬいた。ところが、2000年に日本の最高裁判所は退去を確定し、行く当てもなく追い出される窮地に立たされたのである。

우토로 마을 주민들이 손수 지은 구호
ウトロ地区の住民らが直接つくったスローガン

우토로는 재일조선인의 고향
우토로는 반전(反戰)의 기념비
우토로를 없애는 것은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없애는 것
우토로를 없애는 것은 일본의 전후(戰後)를 없애는 것
우토로를 없애는 것은 일본인의 양심을 없애는 것

——

ウトロは在日のふるさと
ウトロは反戦の記念碑
ウトロをなくすことは在日の歴史をなくすこと
ウトロをなくすことは日本の戦後をなくすこと
ウトロをなくすことは日本人の良心をなくすこと

한일시민사회와 정부의 지원

韓日市民社会と政府の支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5년 <우토로국제대책회의>가 만들어 지고 우토로 땅 매입을 위한 모금 캠페인이 시작됐다. 그 결과 2008년 한·일 시민사회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토지 매입을 결정 하고, 2010년 우토로 마을의 약 1/3의 부지를 매입하여 강제퇴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우토로 마을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고 4-5년간의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2동의 공적주택과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적 주택이 완성되면 주민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주민들과 뜻있는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우토로와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담은 작은 기념관을 건설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この事実が知られると、2005年に<ウトロ国際対策会議>が発足され、ウトロの土地の買入れのための募金運動が始まった。その結果、2008年韓日市民社会と韓国政府の支援で土地の買入れが決定、2010年ウトロ地区の約三分の一の敷地を買入れることになり、強制退去の危機から脱出した。

日本政府は、2016年6月からウトロ地区に対する撤去作業を始め、4 - 5年をかけて「町づくり事業」を行い、2棟の公営住宅と公園などを造成する予定で、この公営住宅が完成した暁には、住民らはこの町に帰ることになる。また、住民らと志のある市民らはこの事業の一環としてウトロと在日朝鮮人の歴史を収めた記念館の建設を希望している。



▲ 철거에 들어간 우토로 마을 | 撤去が始まったウトロ地区



▲ 주민들이 희로애락을 같이했던 동포생활센터 에루화
住民が喜怒哀楽を共にした京都コリアン生活センター エルファ

민족 문화를 지켜나가려는 노력

民族文化を守っていくための努力

열악한 생활 환경과 차별 속에서 재일 조선인들은 더욱 뚝뚝 문화를 지키며 내일을 그려갔다.

주민들은 1946년 ‘구제초등학교’를 건립(지금의 우토로 동포생활센터 자리)해 아이들을 가르쳤다. 일본 정부나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세운 학교가 아니라 기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조선인이 스스로 힘을 모아 지은 학교였다. 1949년 일본 정부가 학교 폐쇄령을 내리기 전까지 이 학교는 조선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말과 역사, 문화를 가르쳤다.

현재 우토로동포생활센터에서는 우리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우토로의 아이들과 인근 마을 학생들 대상으로 한글 공부방을 운영해 고국의 말과 글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세미나, 신년모임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들도 열고 있다.



▲ 조선인연맹 구제학원(우토로국어강습소)8.15기념 1946.08.15
朝鮮人連盟 久世学院(ウトロ韓国語講習所)8.15記念1946.08.15

劣悪な生活環境と差別の中、在日朝鮮人らはより一丸となって文化を守りながら未来を夢見てきた。

住民らは1946年「久世初等学院」を創立(現在の南山城同胞生活センターの場所)、子供達を教育した。日本政府や民間団体の助けを得て建てた学校ではなく、米代にも事欠く朝鮮人が自発的に力を合わせて建てた学校だった。1949年に日本政府の学校閉鎖命令が下る前まで、この学校は朝鮮の子供達に母国の言葉と歴史、文化を教えた。

現在、ウトロ同胞生活センターではハングル教育が行われている。ウトロの子供達や近所の学生らを対象にハングルの勉強会を運営、祖国の言葉と文字を子孫に伝えている。また、様々なゼミや新年会など、住民らのための多彩なコミュニティイベントを開催している。